

# 옥공예 거장의 숨결을 느낀다

## 玉匠 장주원 작품전 ... 9일~2월22일 광주시립미술관



은은한 빛깔을 품은 옥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발견되는 특별한 광채가 매력적이다. 50여년 동안 옥만을 깎아 온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 장주원(71·사진) 선생이 20여년 동안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9일~2월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그는 옥공예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중국의 기술과 작품성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신장(神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장인이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사랑받는 보석이며 인(仁), 의(義), 지(智), 용(勇) 등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쓰여 왔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족 등 특수계층만 지닐 수 있었고, 옥을 다루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겨 옥공인도 10명 안팎으로 제한했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무려 20여년에 걸쳐 완성한 '녹옥 사귀 해태 향로'를 비롯해 장인의 예술혼이 섬세하게 새겨진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의 추정가만 70여억원에 달한다. 청옥, 청옥석, 백옥, 백옥석, 황옥, 조옥, 담청옥, 사색옥 등 옥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빛깔을 선사해주는 작품들이다.

하나의 옥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 절단, 가공, 연마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완성되더라도 옥 표면엔 작은 실금이 발견되면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국내 최고의 옥으로 평가받는 춘천옥만을 선별해 대부분 10여년 넘게 제

작했다. '녹옥 사귀 해태 향로'는 에메랄드빛이 도는 녹옥에 해태상을 새긴 향로이다.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해태상이 향로의 4면을 장식했고, 향로 뚜껑에도 해태 두 마리의 전신을 새겨넣어 완숙미와 조형미를 더했다. 또 '백옥 봉황 연 향로'는 옥구슬을 가지고 노는 봉황의 자태를 표현

## 20년 간 만든 작품 70여점 선보여

## 2010년 루브르·대영박물관 전시

한 작품으로, 백옥의 표면에 연꽃과 봉황의 깃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 신기(神技)에 가까운 장인의 손놀림이 느껴진다.

옥을 잊거나 붙이지 않고, 자연석 상태에서 깎고 다듬어 움직이는 원형 고리와 여의주 등을 표현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그가 유일하다. 이 기술을 통해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가 입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표현했고, 한 쌍의 고리를 잇달아 연결하는 기법인 '이중 체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또 '8'자 형태의 주전자의 내부에 액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녹옥 사귀 해태 향로'

수 있도록 통로를 뚫어주는 기법도 그만인 할 수 있는 정교한 작업인데, 이번 전시에는 10여점의 주전자 작품이 출품됐다. 목포 출신인 그는 어려서부터 금은 세공과 보석 가공 기술을 배운 뒤 옥의 매력에 빠져 지난 50여년 동안 옥 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지난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중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뿔새김' 기법에 능해 향로, 주전자 등 섬세한 조각품도 많이 남겼다.

한편 그는 이번 광주 전시회에 이어 오는 2010년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대영박물관에서도 전시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510-0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우리들의 부끄러운 '광주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부천시엔 '회색도시'나 다름없었다. 1973년 시 승격 이후 인구나 공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줄 '문화'도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였다.

하지만 부천은 1987년 소설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로 일약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의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천'이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원미동 효과'에 고무된 부천시는 이듬해인 1988년 부천시립교향악단(이하 부천필)을 창설했다. 그러나 의욕만 컸지 지원에는 인색했다. 단원이라고 해봐야 20명 안팎이었고 보수 역시 당시 다른 시향의 절반도 안 되는 20만~3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은 여름이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난방 시설이 안 돼 단원들은 몸을 뭍어가며 연주해야 했다.

일 년 넘게 '이름뿐인 시향'을 거느리던 부천시는 부천필의 비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천시는 수소문 끝에 당시 서울대 음대 임원정 교수를 찾아가 상임지휘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천시는 (시 입장에서는 모험이나 다름없는) 임 교수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

1989년 8월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그는 단원 영입부터 쟀다. 20명의 연주자 가지고는 평생(?)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작품밖에 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력만 있으면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젊은 연주자도 과감하게 수석자리에 앉혔다.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지금 부천필은 부천시의 '제1 브랜드'가 됐다. 근 20여 년 동안 포디움(지휘대)을 지킨 임 지휘자의 리더십 덕분에 정단원 74명, 연선산 30여 명이 탄 튼실한 오케스트라로 거듭났다. 국내 '빅2'인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도 해내지 못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위업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또 톱스타 부럽지 않은 전국구 팬클럽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생겼다.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 지원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단장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는 등 경정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향의 경우 지휘자 연봉이 6천200만 원으로 부산 10만 달러, 대구 2억 원, 인천 1억 원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단원 보수 역시 최하위권이다. 이렇다 보니 창작공연과 해외공연 실적도 저조하고 전국 교향악 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자부하는 광주가 '열린 행성'으로 부천필을 국내 '빅3'에 올려놓은 중소도시 부천시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송년 회원 합동 자선공연

### 광주무용협회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사진)가 불우이웃돕기 송년 회원 합동 자선공연을 갖는다. 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용인들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서양 무용단은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역동적인 한국 무용 '소리의 몸짓'을 선보이며 박주희 그랑무용단은 자아찾기에 관한 내용을 현대적 춤사위로 풀어낸 '라이프 스토리 2'를 무대에 올린다.

또 김미숙 하나 무용단은 중요무형문화재 97호인 박병춘 선생이 진도 북놀이를 재구성한 박병춘류 진도북춤을, 광주로얄 발레단은 오윤환씨 안무로 '열정'을 공연한다.

그밖에 나인숙 무용단과 문화화 M댄스아카데미는 미국 컨츄리 음악에 맞춰 추는 '라인데스로의 초대'와 뮤지컬의 한 장면을 표현한 '시카고'를 무대에 올린다. 박진수 무용단과 KDC제즈댄스단은 '베토벤 바이어스'와 '햇스고'를 선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무용인상(박주희)과 신인상(이세라)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빛소리오페라단 정기 공연 '라 보엠'

### 12·13일 광주문예회관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이 제 17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무대에 올린다. 12일(오후 7시30분), 13일(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라 보엠'은 지난 1997년 뮤지컬 '멘트'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주인공 미미와 로돌프가 부르는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뮤제타 왈츠' 등 주옥같은 음악은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곡이기도 하다.

가난한 시인 로돌프는 화가 마르셀

로 등 예술을 하는 친구들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친구들이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러 나간 사이 로돌프는 이웃에 살고 있는 미미를 알게 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가난한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

최덕식 단장이 총 감독을 맡았으며 이일구·이영기(계명대 교수)씨가 지휘와 연출을 맡았다. 미미와 로돌프 역으로 유형민·김순미, 김관석·김희창씨가 더블 캐스팅됐으며 장공선·안은유·마명준·김기보·최준원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대구여성오케스트라, 광주대학창단, 광주평화방송합창단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

## 출판계 올해의 베스트셀러

## 한국문학 뜨고 자기 계발서 지고

올 한해 한국문학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가운데 최근 몇년간 큰 인기를 끌었던 우화형 자기계발서의 인기는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의 부활=올해 서점가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신작 출간이 러시를 이루며 한국소설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인터파크도서에서는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안에 포함된 소설 16종 중 국내 작가의 작품이 9종을 차지했으며 교보문고의 소설분야 상위 20위 안에는 국내 소설이 8종 포함됐다.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과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 백영옥의 '스타일', 김려령의 '완득이' 등이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오랫동안 포진했으며, 최근 출간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도 출간 직후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며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문학이 인기를 얻은 것은 작가가 글 밖으로 나와 TV 등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몫

을 했다. 이외수의 산문집 '하락하락'은 작가의 TV 오락프로그램 출연 이후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개밥바라기별' 역시 황석영의 TV 출연 이후 더욱 인기를 얻었다.

▲자기계발서 퇴조 기미=몇년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던 경제경영서/자기계발서 시장은 올해 퇴조기미를 보였다. 인터파크도서에서는 2007년 50.5%의 성장률을 보였던 경제경영서 판매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서적들의 판매가 급감한데 따라 올해는 -6.8%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교보문고에서도 경제경영서 판매는 3~4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서 올해 10월부터 성장률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서 시장 역시 인터파크도서 집계에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대에 그쳤고 교보문고 집계에서는 지난해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 안에 자기계발서가 7종 포함됐으나 올해는 5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신뢰의전통! 최고의품질! 최고의서비스!

노비타비데프라자

비데프라자 | 062-515-1144

남성 헤어 기능장식

大山프리모님네가발

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초슬림!!

최상품 장차기로 최고의 만족을 드려드립니다

귀하의 헤어80만개를 만들어주는

정밀한 정돈자가 되었습니다

다국적화 | 062-515-0688, 515-4002

점점비 | 062-515-0677, 515-0200